

## 『모택동의 한국전쟁 — 중국이 압록강을 건너기까지』\*

李 炳 柱 譯\*\*

중국은 1950년 10월 19일 25만 여의 “中國人民志願軍” 북한에 투입, 한국 전쟁에 개입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의 성립 시까지 2년 9개월 동안 한반도 戰場에서 공산군 측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중국이 한국전쟁의 起源 문제와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었다는 의심을 받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이 北韓, 蘇, 中 간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1950년 10월 유엔군의 진격이 북한과 中國 國境에 근접해 감에 따른 自衛行爲였는가 하는 문제는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의도는 물론 한국전쟁의 기원문제와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 지금까지 학계의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한 학설은 크게 “傳統主義 派”의 설인 中·蘇 음모설, 中·蘇·북한 협력설, 中·北韓 음모설과 “修正主義 派”의 “美帝의 北韓 南侵誘導설”과 “民族解放戰爭說” 등으로 나눈다. 그러나 1990년 구소련 붕괴 후 한국전쟁 관련 비밀문서들이 解密, 공개됨에 따라 최근에는 위 두 학파의 학설 중 전통주의학파의 학설, 그 중에서도 특히 “蘇·中·북한 협력설”이 한국전쟁 기원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까지 중국정부의 관련문서 공개가 미진하여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결정적 진실의 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서평이 대상으로 하는 朱建榮의 2004년도 책은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문제를 단일 주제로 하여 상세한 고찰을 한 것으로,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의 主導者인 毛澤東의 한국전쟁 개입 결정의 동기, 그의 “중국적 사회주의” 사상, 介入 前後의 國際觀, 그리고 모의 특유한 리더십과 전략 등에 초점을 맞춘 드문 저서이다. 이 책의 원제, “毛澤東의 朝鮮戰爭-中國이 鴨綠江을 건너기까지(毛澤東의 朝鮮戰爭-中國が 鴨綠江을 渡るまで)”는 그러한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 책에 대하여 저자는 특별히 서론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일본에서 두 가지 상을 수상했고, 1990년 이후 공개된 구소련의 정부문서 자료와 그에 근거한 중국, 일본, 한국, 서구 학자들의 최신 연구 성과들, 두 차례의 중국 현지방문을 통한 연구 자료의 수집과 많은 한국전쟁 관련 중요 인사들과의 인터뷰 자료, 그리고 미국에 6개월 간 체재, 윌슨 冷戰史研究센터를 비롯한 많은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풍부한 자료들의 열람과 여러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은 새로운 자료와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저자는 스스로 이 책에 대해 출판 당시까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정책 결정 과정을 고증한 최초의 연구서”이며, “현재 2004년의 시점에서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정책 결정에 관한 최신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읽어준다면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저자 스스로 이 책이 상당한 勞作임과 책의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숨김없이 내비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는 또한 이 책은 사회과학적 見地에서 저술된 것으로 정치적 주관적인 경향을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면서, 현재의 남·북한 간 정치적 대립에 간여하거나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조선’ 또는 ‘평양’으로, “大韓民國”을 ‘한국’으로 表記 말하고 있다.

이 책이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단일 주제로 한 450여 쪽의 상당한 분

\* 서평: 朱建榮 著, 『毛澤東의 朝鮮戰爭-中國が 鴨綠江을 渡るまで』(岩波書店, 2004. 7), 456 페이지

\*\* 전 영남대학교 교수, 중국사학회 고문

량의 저술인 점과 이 책에 대해 저자 자신이 든 위의 여러 가지 장점들은 오랜 동안 중국과 한국전쟁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 온 본 평자로 하여금 이 책에 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래서 본 평자는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여러 번 정독을 하였다. 그 결과 이 책에는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문제에 관한 기본적 觀點(view points)과 역사적 사실 및 資料解釋에 있어서나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의 최근의 연구들과는 매우 다른 점들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그러한 점들은 반드시 학술적으로 可否 問의 是非가 가려져야 할 중요한 쟁점 사항들이며, 그것들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 책은 저자가 책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공언과는 달리, 이 책 자체의 객관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인 일반 독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적지 않은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의 그러한 면은 이와 같은 서평이 더욱 필요한 이유로 믿고 있다.

이 서평의 고유명사의 표기는 이 책 속의 “조선인민공화국”과 “조선전쟁”을 “북한”과 “한국전쟁”, “대한민국”은 “한국”으로 한다. 주요 인명은 편의상 漢字의 우리말 발음을 쓰되 한 차례 중국어 발음(예: 毛澤東(마오쩌둥))을 괄호 안에 併記토록 하겠다.

이 책은 序論에 이어 本論의 10개의 章, 그리고 結論 章인 第11章을 합하여 총 12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각 장의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중국과 한국전쟁의 開戰; 제2장 미국의 개입에 대한 분석; 제3장 東北邊防軍의 창설과 소집; 제4장 對 베트남·타이완의 戰略調整; 제5장 高崗과 林彪의 異議 提起; 제6 I 장 활시위에 메겨진 화살; 제7장 大論爭; 제8 I 장 出兵과 中止의 틈새; 제9장 周恩來의 秘密 訪蘇; 제10장 鴨綠江의 저편으로; 제11장 50년 후의 回顧.

이 책의 1장과 2장은 각각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제1장에서 1) 중국은 북한의 남한침공계획을 1949년 초부터 알았고,

동조 및 관여하고 있었는가?; 2) 1950년 6월 25일이 한국전쟁의 “유일한” 분기점, 즉 開戰의 날인가?; 3) ‘6·25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였는가?’의 세 가지 문제, 2장에서 1) 1950년 6월 27일 트루먼 대통령의 성명에 의한 미국의 한국전쟁에의 신속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중국정부의 초기 반응과 긴급 대응; 2)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중국정부의 판단과 그에 기초한 중국의 對美 군사전략의 두 가지 문제들이 그것이다.

### 1장-1) 중국정부는 북한의 남한침공계획을 1949년 초부터 알았고, 동조, 관여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이 책의 결론은 毛澤東을 위시한 중국지도부는 1950년 5월 중순 김일성이 북경에 가서 毛와 가진 비밀회담에서 남침계획을 설명했을 때까지 북한의 남침계획을 잘 알지 못했고, 그 계획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다. 먼저, 중국공산당(중공)은 북한의 “혁명투쟁(무력 통일전쟁-필자)”에 대한 초기 단계의 지원 방침으로 같은 사회주의 진영의 멤버로서 “동정은 하나,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침은 국공합작과 국공내전의 오랜 과정에서의 중공과 소련과의 관계를 통하여 毛가 깨달은 “혁명은 스스로의 힘에 입각하여 해야 한다”는 신념, 소련이 이미 한반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자들이 중국의 간섭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김일성이 舊 滿洲의 길림성에서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았으며, 그 후 滿洲를 무대로 반일투쟁을 했다”는 틀린 기술을 하고 있다.

둘째 예는 1949년 초부터 1950년 1월까지 중국·북한 간에 이루어진 두 건의 군사적 협력 사건에 관한 것이다. 그 기간에 중·북한 간 이루어진

군사적 협력 사건은 1949년 5월 북한 民族保衛省 副相 겸 總政治部 주임 金一이 중공군 내 조선인 병사들의 귀환 임무를 띠고 북경에 파견되어 毛를 비롯한 중국지도자들과 회담을 하고, 毛의 허락 하에 같은 해 7~8월 중 瀋陽과 長春에 주둔하고 있던 2만여 명 규모의 조선인 2개 師團(164師, 166師)을 북한으로 송환 받은 것과 1950년 1월 金光俠 부수상이 중국에 파견되어, 중공군 총참모장 대리 聶榮臻(네룡진)을 만나 추가로 중공군 내 조선인 병사의 송환을 교섭하여, 역시 중앙의 허락 하에 '50년 4월 중공군 第4野戰軍에 소속의 조선인 병사 14,000여명을 무기, 장비와 함께 송환 받은 두 가지이다. 잘 알려진 바, 두 곳에서 송환된 조선인 병사들은 귀국 후 각각 북한군 5사단과 6사단, 그리고 제12사단으로 재편되었다. 위의 두 번의 교섭으로 북한이 얻은 중공군 내 조선인 부대들의 병력은 164사단 10,821명, 166사단 10,450명 계 21,271명과 제4야전군 소속 14,000명의 총 35,271명에 이른다. 이들 전체병력은 3개 사단 이상의 규모로 당시 북한의 기존 병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공내전에서 풍부한 實戰經驗을 가진 병사들이어서, 이들 병력의 증원으로 북한의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증강되었고, 이들 3개 사단 병력은 6·25 남침 시 북한군의 핵심 공격부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저자는 沈志華(선즈화, 중국의 한국전쟁 연구가)의 설을 따라, 당시 毛의 중공군 내 조선병사의 북한 송환을 허락한 동기는 북한의 군사적 수단에 의한 한반도 통일계획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1949년 북한이 남한의 공격에 불안해하고 있어서 “국제주의적 입장에서 북한정권에 동정과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셋째 예는 1949년 12월 16일부터 1950년 2월까지 모스크바에서 ‘중소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 체결을 위한 모택동·스탈린 회담이 있었다. 그 회담 기간 중 毛와 스탈린이 가진 여러 번의 비밀회담에서 김일성의 南進計劃에 대한 말들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저자는 沈志華, Chen Jian(陳兼, 재미 중국인 학자), Sergei Goncharov, 楊奎松(양쿠이

송)의 연구들을 인용, 당시 중·소 정상회담에서는 김일성의 남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토론은 없었으며, 따라서 毛는 1950년 5월 김일성의 訪中 때까지 북한의 남진계획을 잘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1장-2) 1950년 6월 25일이 한국전쟁의 “유일한” 분기점(開戰의 날)인가?

오늘날까지 한국전쟁이 시작된 날은 북한군이 전면적 남침을 개시한 1950년 6월 25일로 보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 정설이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전쟁을 국내전쟁과 국제전쟁의 2단계로 나누고, ‘6·25’만을 한국전쟁의 기점으로 보는 것은 미국이 주도한 냉전시대 시각에서 한국전쟁을 보는 일면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한국전쟁을 “한반도에서 남북으로 분단된 같은 민족 간 再統一을 목표로 한 國內戰爭이라는 각도에서 본다면 한국전쟁은 ‘6·25’보다 훨씬 전, 38도선에서 남·북한 간 충돌이 많았던 1949년에 이미 시작되었다 해도 과장은 아니며, ‘6·25’는 단지 당시의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교체된 전환점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책의 이러한 해석은 중국정부의 官邊 견해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한 논리의 근거는 『抗美援朝戰爭史』 제1권(2000년도)과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북한주재 임시대리대사로 파견되었던 柴成文(차이청원)의 “증언”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한국전쟁을 국내전쟁과 국제전쟁의 두 단계로 구별하는 것의 정당성을 부여키 위하여 한국전쟁과 미국의 南北戰爭과의 유사성을 말한 “자유주의 성향의 학자”(?)들인 영국의 J. Hardy와 미국의 B. Cumings의 설에 일리가 있다고 경강부회하고 있다.

### 1장-3) ‘6·25’를 주도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전술한 바, 1990년 이후 解密된 구소련의 한국전쟁 관련 비밀기록들과

미진하나마 점차 많이 밝혀지고 있는 중국 측 자료들, 그리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북한군 고위 장성들의 증언들을 통하여 한국전쟁이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의 합력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 책도 한국전쟁의 발발에는 세 사람의 협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金, 毛, 스탈린 세 사람 중 최초로 '6·25' 한국전쟁을 야기할 의사를 가졌었고, 그 것을 꾸준히 추진했으며, 전쟁의惹起와 진행 전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한 주도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이 책은 역시 중국학자들의 견해를 따라 김일성이 그 주도자였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전쟁에 대한 모택동의 초기의 입장에 대해서도 陳毅(천이) 元帥의 아들로 軍事研究家인 陳曉魯(천샤오루)의 말을 인용하여 “모택동은 조선에서의 開戰을 바라지 않았고”, 중국은 북한이 한국전쟁을 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고도 주장한다. 스탈린에 대해서도 저자는 그가 1949년 초반까지 김일성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행하는 문제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고, 적어도 주도적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스탈린은 북한의 한국침공이 제3차 세계대전을 야기하여, 미·소 간 직접 충돌이 일어날 것을 무엇보다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직접 그의 남침계획의 지지와 지원을 요구했을 때 그는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침공이 국내 해방전쟁이기 때문에 김이 미국의 대규모의 간섭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데, 스탈린은 그 것을 막을 명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키는데 스탈린과 모택동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것은 그의 한반도 무력통일에 대한 강한 신념, 스탈린의 승인을 얻기 위한 집요함, 그리고 그의 ‘교묘한 술책’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김의 교묘한 술책이란 그가 당시 中·蘇 間에 존재했던 불신과 국제정세의 변화, 즉 중공혁명의 승리를 이용하여 스탈린의 승낙을 이끌어 내고, 스탈린의 승인을 내세워 모택동이 반대하지 못하게 하여 中·소 양국을 자기의 목적에 이용한 것을 말한다.

## 2장-1)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한 중국의 초기 반응과 대응

북한의 '6·25' 남침이 시작된 후 이틀 동안 중국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6월 27일 한국전쟁 개입과 대만해협에 미국 함대를 배치하는 트루먼 대통령의 성명이 발표 되자마자 중국정부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수일 내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조치들을 연속으로 취했다: 첫째, 트루먼의 성명 후 10시간 만에 주은래 외상의 격렬한 반발 성명 발표 및 중앙정부 인민위원회의 미국의 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의 신속히 강구; 둘째, 중국정부는 긴급 對應措置로 6월 28일 중국군 총참모부로 하여금 트루먼의 성명을 세밀히 분석케 하고, 周는 모택동과 협의, “軍事觀察組”(組長: 柴軍武=柴成文)의 즉각적인 북한 파견 결정; 셋째, 6월 30일 중앙지도부의 臺灣과 티베트에 대한 정책의 대폭 수정; 넷째, 전국 군대 배치의 전면적 조정 단행과 東北邊防軍의 창설 결정.

## 2장-2)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중국의 판단과 對美 군사전략

중국지도부는 과거 국공내전 시 미국의 행태에서 얻은 역사적 교훈에 비추어 미국의 한국전쟁 간섭의 전략적 의도를 숙고하였으며, 그 결과 “蔣介石”이 대륙에서 쫓겨난 이후 미국은 줄곧 중국에 반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자 그것을 중국에 대한 반격을 실행하는 빌미로 삼았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즉, 중국지도부는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전략적 의도를 “한반도의 내전을 국제화하여 중국에 대한 군사 침략을 발동한 것”으로, “중국이 이전부터 경계해 오던 美帝國主義의 ‘對中進攻計劃’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모택동이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의 궁극적 의도와 전략적 목표를 '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며, "三路向心迂回" 전략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큰 전략으로 보았다고 말한다. 이른바 "삼로향심우회" 전략이란 한반도, 타이완, 인도차이나를 각 각의 침략 루트로 하여 최종적으로 중국을 공격, 파괴시키려는 전략을 의미한다.

저자는 북한의 한국전쟁 야기와 미국의 개입과의 관련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또 하나의 다른 인식을 지적하고 있다. 즉, 북한의 한국전쟁의 야기는 미국이 쳐놓은 울가미에 걸려 든 것이며,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전면적 침략을 실행에 옮길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中共中央은 세계전략 전반에 주목하여, 한국전쟁을 "국제투쟁, 아니면 적어도 동방에서의 국제투쟁의 초점"으로 간주하고, 전략상 북한정권의 存亡 보다도 아시아의 세력균형 구조를 중시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개입이 단순히 한반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본의 대륙침략 루-투를 따라, 한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중국본토를 목표로 進攻할 것으로 예상, 중국 지도부는 미리 한반도를 미국과의 交戰의 場으로 선택했으며,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은 협소하고 산이 많아서 미군의 기계화 병력이 기동하기 어려운 반면에, 중국과는 가까워 단기간에 많은 병력 투입이 용이하고, 소련으로부터의 지원을 얻는 것도 쉬운 점 등이 중국이 한반도를 미국과의 戰場으로 선택한 이유라고 한다.

제3장은 2장에서 언급한 미국의 한국전쟁 군사개입에 대하여 중국이 대비책으로 취한 조치와 전략, 곧 군사정찰조(군사정보요원들)의 북한 파견과 東北邊方軍의 창설을, 제4장은 對 베트남, 대만, 그리고 티베트의 전략조정 문제를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 3장-1) 군사관찰조의 북한 파견

1950년 6월 27일 트루먼의 미국의 한국전쟁 군사개입 성명 후 6월 30일

周恩來가 柴成文을 불러 그를 組長으로 하는 軍事偵察組의 북한 파견을 명하였다. 군사정찰조란 문자 그대로 군사정보원들을 말한다. 파견인원 총 10명 중 前 平壤駐在 東北通商事務所員 1명, 電信翻譯員 2명, 無線係員 1명을 뺀 柴成文을 포함한 6명은 모두 중앙군사위원회 정보부와 武官訓練班에서 차출된 高級 군사정보원 출신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보안상 대사관원의 명의로 가도록 하였다. 柴는 駐北韓 臨時代理大使에, 다른 군사정보원들은 각각 參事官, 一等書記官, 武官, 副武官의 職銜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主任務는 중국공산당과 북한노동당, 중국군과 북한군 간의 연락 유지와, 戰場 상황의 변화를 비롯한 각종 군사정보를 수집, 본국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들 '新大使館員' 일행은 7월 8일 북경을 떠나 10일 아침에 평양에 도착했을 때 북한 측의 큰 환대가 있었다. 당일 외상 박헌영의 환영과 김일성의 접견을 받았으며, 김일성과 대사관 간 직통전화의 개설, 중국 측과의 연락 책임자 지정 등의 '대사관' 업무에 필요한 조치 등 각종 편의제공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의 환대는 겉치레였을 뿐, 실제 임무 수행에는 비협조적이었다. 북한 측으로부터의 상세한 戰線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귀국한 延安派인 총정치부 부주임 徐輝(중국 대사관측과의 연락책임자)와 제2집단군 사령관 武亭은 군사관찰조원들과의 대화조차도 엄격한 제한을 당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관찰조의 早期 派遣은 중국의 참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한다. 그들이 수집해 보낸 북한군의 戰力과 전술에 대한 분석의 보고는 중국 지도부가 북한군의 전쟁 持續力을 판단하고, 한국전쟁 개입시기를 결정하는데 꽤 유용하였으며, 미 항공기 공습의 위력과 공중폭격이 陸上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중국 지도부로부터 하여금 조기에 對空襲作戰 준비에 힘을 기울이고, 중국의 공군 육성정책을 앞당기는 결정을 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소련제로 무장한 북한군의 전력, 전술과 중국군의 것과의 비교 보고는 동북변방군의 훈련 목표와 약점 보강의 목표를 제공했다.

### 3장-2) 東北邊防軍의 창설과 임무

동북변방군의 창설은 周恩來(군사위원회 부주석)가 소집하여 朱德(인민해방군 총사령관), 聶榮臻(총참모장 대리), 林彪(第4野戰軍兼中南軍區司令官)를 포함한 15명의 軍 最高首腦들이 참석한 國防軍事會議에서 1950년 7월 7일과 10일 2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모택동의 재가를 받아 7월 13일 중앙군사위 명의로 공포되었다. 그 임무는 東北국경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북한에 인접한 압록강 이북 지역으로 출동, 대기하는 것과 한반도 戰場의 情勢 여하에 따라 북한을 원조키 위한 준비를 갖추어 필요시 압록강을 건널 태세를 취하는 두 가지다. 창설 초기 동북변방군의 지휘계통은 中央軍委의 지시를 받는 상급 지휘기관인 변방군사령부와 작전부대로서의 제13집단군사령부의 二元的으로 되었다. 변방군사령부와 제13집단군의 사령관으로는 8월 초에 각각 東北軍區司令官 高崗(가오 강)과 鄧華(덩화)가 임명되었다. 작전부대로서 새로 편성된 13집단군은 전략예비대로 있던 제4야전군 소속 제13집단군(38, 39, 40군)에다 제42군, 포병 제1, 2, 3사단과 일부 高射砲部隊, 그리고 中南軍區의 50軍을 추가한 모두 5개 보병군단과 3개 포병사단으로 구성된 총 병력 27만여 명을 상회하는 大軍이었다. 동북변방군에 속할 위의 부대들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전 주둔지에서 동북지역 주둔지로 이동을 완료하였다.

### 4장-1) 對 베트남·대만 및 티베트의 전략 조정

中國首腦部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위에서 본 동북변방군을 창설, 배치함과 거의 동시에 베트남, 대만,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기존 정책도 변경하였다. 중국의 그러한 조치는 모택동이 한국전쟁에 개입을 계기로 취하고 있다고 상정한 중국을 향한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 곧 그가 “三 路向心迂回”이라고 명명한 미국의 전략에 대한 대비책으로 행해진 것이다.

그런고로, 이 책은 중국의 對 베트남, 대만, 티베트 전략 조정을 “동북변방군 창설과 연계된 ‘외부환경 정비’ 策”이었다고도 말하고 있다.

#### (1) 대 베트남 정책 변경

1950년 4월 중순부터 시작된 중국의 베트남에 대한 기존 정책은 베트남의 사단급 이상의 군 기관(군사위원회, 군 사령부, 사단)에 중국인 고문관을 파견하고, 베트남군에 대한 군사물자 지원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은 기존의 방침을 바꾸어 베트남에 중국군 지휘관을 보내 베트남군의 군사작전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였다. 중국정부는 6월 3일 군사고문관들을 베트남으로 파견함과 동시에 西南軍區 부사령관 겸 雲南(윈난) 軍區 사령관 陳賡(천경)을 중공중앙 대표의 직함으로 파견, 中越國境 부근에서 프랑스군을 축출하는 베트남군의 작전 지휘를 직접 맡도록 한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즉 9월 초 중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베트남의 308사단 등 주력부대를 무기와 장비 그대로 귀국하여 대프랑스군 축출 작전에 참가하였는데, 천경 장군은 이 작전의 지휘관이었던 것이다.

중국의 위와 같은 정책 변경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겨냥한 것이었다: ① 한국전쟁에 개입하기 전에 먼저 중국의 서남 국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 당시 中越 국경 부근의 수만의 프랑스 軍과 국경선 양쪽 산악지대에 있던 십수만의 국민당 잔존부대들을 殲滅하여 미군이 프랑스軍과 국민당 군과 연합하여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조치였다: ② 프랑스가 미국 주도의 유엔군에 참가하여 한국전쟁에 병력을 투입하는 의도를 견제하고, 미·불 ‘제국주의 진영의 협조’에 쫓겨 박는다는 것.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략 조정으로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에 대한 총력전을 펼칠 수 있으며, 中·美 間에 全面戰이 발생하는 경우에 對備, 남부국경에서 유리한 태세를 마련해 둘 수 있다는 것이다.

## (2) 臺灣進攻作戰의 연기

1950년에 들어 중공의 대륙의 제패가 거의 마무리 되자 1월 臺灣攻略作戰을 계획, 연내에 실행하려고 각 방면에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모두 이런 저런 이유로 실효를 보지 못했다. 동년 1월 50만 대군으로 12개 군단을 편성하고 3월 臺灣進攻의 實戰演習으로 舟山列島와 金門島 공격했으나 舟山列島 공략만 성공, 금문도 공격은 실패했다. 1949년 12월 공군건설을 위한 航空學校를 개교하여, 파일럿을 양성하고, 空挺(파라슈트)부대를 설립하여 대만 공격에 투입하려 했으나, 둘 다 상당한 훈련기간이 소요되어 별 진전을 못 보았다. 도해작전을 위해 만든 해군도 기간이 日淺하여 질과 량 면에서 국민당 해군에 비견할 수 없는 약체였다. 1950년 초에는 국민당 공군의 폭격에 의해 많지 않은 군함 중 26척을 잃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27일 미군의 한국전 개입과 미 제7함대의 대만해협 배치가 분명하게 됨으로서 중국의 대만침공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中央軍委는 8월 11일 대만진공계획을 52년 이후로 연기하였다. 이러한 臺灣進攻作戰의 연기는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과 관련한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① 미국의 제7함대의 대만해협 배치는 중국정부와 국민들의 큰 분노를 초래해, 중국이 “지원병”을 한반도로 보내게 된 심리적 요인이 되었고; ② 중국은 대량의 군대를 동남 연해에서 동북으로 이동시켜, 한국전쟁에 처음보다 훨씬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 병력의 절대적 우위로 “맥아더의 정예병을 격퇴”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 (3) 티베트 점령의 연기

중국수뇌부는 1950년 초 중국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이어 티베트의 점령을 년 내에 실시하기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티베트 점령계획도 종래 군사작전을 우선한다는 방침으로부터 정치적 교섭을 중시하는 방침으로 바꾸었다. 중국정부는 7월 초 서남군정위원회를 통하여

티베트 평화협상사절을 파견하였으며, 티베트 전역의 점령도 당초 연내 해결을 목표로 했던 것을 “적절히 연기한다”는 방침으로 바꾸었다. 중공군은 1950년 10월 티베트의 昌都(창두)를 점령하는 것으로 일단 진격을 멈추었으며, 1951년 5월 ‘티베트 평화해방에 관한 합의서’가 조인되기를 기다려 9월에 수도 라사(Lhassa)에 주하였다.

제5장은 1) 중국의 9월 한국전쟁 출병 구상과 연기, 2)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 예측, 3) 그 후 중국의 3段階 병력배치계획을, 제6장은 1) 미군의 인천상륙 후 상황정보의 交換不實에 관한 중국의 북한, 소련에 대한 불만, 2) 참전준비의 가속화를 다루고 있다.

## 5장-1) 9월 출병구상과 그것의 연기

毛澤東을 위시한 중국수뇌부는 8월 초 한국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후 유엔군의 반격과 의도에 깊은 경계와 염려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毛는 한국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동북변방군의 철저한 군사준비를 지시, 실행케 하였다. 毛는 8월 4일 黨中央政治局會議를 열어 합의 형식으로, 유엔군의 38도선 이북으로의 진격 이후는 물론, 미군의 인천상륙 이전에 중국군을 북한에 출동시켜 미군과 교전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 毛는 이 회의에서 북한을 반드시 도와야 하며, 북한에 한정해서 미국과 교전할 것이고, 미국이 원자폭탄을 쓰더라도 중국은 최후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 한다. 그리고 그는 다음날인 8월 5일 高崗(東北軍區司令官兼政治委員)에게 전보를 보내 邊防軍 각 부대는 9월 상순까지는 실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과 8월 중순 각 군의 사단장급 이상의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작전의 목적과 의의 등을 明示하고, 각 부대는 8월 중으로 모든 준비를 완료, 다음의 명령을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高崗은 毛의 지시대로 瀋陽에서 8월 13, 14일 이틀 간 변방군의 간부들을 소집, 軍事會議를 열었다. 13일의 회의에 高는 8월 4일 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된바 대로, “속히 출병하여 북한군과 협력, 일시에 미군을 타파해야 된다”는 점을 역설하고, 毛가 주문한 핵심문제인 중국군의 참전시기, 유엔군과의 교전의 경우 有, 不利條件, 그리고 미국의 원자탄 사용 가능성과 효과의 세 가지 문제를 토론에 붙였다. 그러나 대다수 간부들의 의견은 참전시기에 대하여 “유엔군이 북상, 中·北韓 국경에 도달한 때 참전하거나, 잠시 참전을 보류”하자는 것과, 유엔군과의 교전의 유·불리조건에 대하여 유엔군의 수배의 대포, 우세한 해군과 공군, 원자탄의 보유 등 압도적으로 많은 우수한 근대적 무기와 장비 등을 거론하며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비판론들이 우세하였다. 게다가 14일 出兵 動員을 위한 회의에서는 제13집단군 지휘부 간부 3人(鄧華, 洪學智, 解方)은 瀋陽 변방군사령부의 高崗과 그의 참모들에게 집단군의 편성 상황 및 장비부족에 비추어 볼 때 8월 말까지 준비완료 명령의 완수는 매우 어려운 만큼, 준비완료의 시간을 9월 말이나, 가장 빠르더라도 9월 중순까지 연장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그러한 의견을 전보로 중앙군사위에 상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회의 결과로 인해 高崗와 그의 참모들도 결국 참전 부대 간부들의 의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장은 제13군단 지휘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15일 毛澤東에게 電報로 심양군사회의에서 있었던 위와 같은 前線과 군사령부 지휘관들의 다수의견을 보고, 출병 작전 시간의 연기를 건의를 하였다. 高의 전보를 받아 본 毛도 현지 부대의 그러한 상황을 인정, 8월 18일 高에게 答申을 보내 변방군의 훈련 및 기타 필요 사항의 준비완료 시기를 9월 30일까지 연기하는 허락을 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毛가 위와 같이 변방군의 요청을 허락한 요인으로 심양군사회의 결과 외에도 그 간 북경 수뇌부의 미군의 군사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실상 8월 중순 경에는 毛를 비롯한 중국수뇌부의 유엔군 작전의 특징과 무기의 위력에 관한 인식도 달라져 출병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신중해지게 되었으며, 북경의 수뇌부 중에는 출병 연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 5장-2) 미군의 인천상륙의 예측

9월 15일 유엔군 측의 인천상륙작전의 가능성을 중국 측이 미리 검토, 실제 감행일 보다 20여일 전인 8월 23일 周恩來와 毛澤東에게 보고한 것은 총참모부 작전주임 雷英夫(레이잉푸)였다는 것은 많은 기존의 연구들에 나와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중국군 측의 예측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이 다루지 않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첫째,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예측은 雷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주임으로 있는 總參謀部 作戰室의 여러 참모들의 공동연구의 결과였다는 사실이다. 雷는 작전실 참모 여러 명이 영문으로 된 백악관, 맥아더 사령부, 前線사령관 등 敵의 각 방면의 입장과 견해를 중국어로 번역한 자료들을 시뮬레이션(simulation)하여 격론 끝에 도출한 확신이 선 결론을 작전실 주임으로서 여러 가지 근거와 견해를 정리하여 周恩來에게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다. 그러한 보고를 받은 모택동은 “일리가 있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다음의 3가지 명령을 내렸다 한다: ① 情報部署들은 조선, 미국, 일본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라; ② 그러한 정보를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통보하여 참고토록 하라; ③ 제13집단군은 참전준비를 가속화하여 9월 말까지 끝내고,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毛의 지시에 따라 총참모부 작전실은 북한에 유엔군의 인천상륙 가능성의 정보를 소련과 북한에 통보했으나, 양측은 모두 중국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한다.

이 책은 또한 총참모부 작전실외에도 제13집단군, 外交部 등도 북한군 후방에 유엔군의 상륙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제13집단군 수뇌부에서 8월 31일 解方이 기초하여 鄧華, 洪學智가 연명하여 朱德(해방군 총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유엔군이 “항후의 반격 전략의 하나로서, 병력의 일부를 연안의 후방 수 개 장소에 상륙시켜 교란과 견제 전법을 쓰고, 주력은 현 위치로부터 철도와 국도를 따라 북상, 진격해 오거



나, 소수의 병력이 현재의 위치에서 응전하는 사이에 주력이 후방(평양 또는 서울 지역)에 대거 상륙, 前後에서 협격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바, 그럴 경우 북한군의 처지는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하였고, 같은 보고서는 林彪를 통해 9월 8일 모택동에게 보고되었다 한다. 외교부도 8월 15일 이후 연일 같은 문제에 대한 분석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 5장-3) 3단계 병력배치 계획

3단계 병력배치 계획이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예상한 중국수뇌부가 38선 이북으로 유엔군이 북진할 것에 대비하여 제13집단군의 출병에 따른 조치로서 중국군의 후속 재배치를 시차를 두고 시행한 것을 말한다. 그러한 병력배치계획은 앞의 첫 국방군사회의(7월 7일)에 이은 제2차 국방군사회의(8월 26~31)에서 논의되고 9월 3일 모택동의 재가를 받아 결정되었다. 회의 결과, 정식으로 비준 결정된 한국전쟁 참전에 대비한 3단계 병력 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참전할 최 一線의 동북변방군의 병력은 제13집단군 지휘부의 요청을 수용, 제50군을 증원하여 11개 군단의 36개 사단(제13집단군 소속 3개 군단, 제42군, 제50군)과 일부 고사포부대 및 후방지원부대의 70만 명으로 하고; ② 第2陣 병력은 3개 군단의 12개 사단으로 하여 華東軍區에서 조달하며 10월 말까지 濟南, 徐州 一線에, 제9집단군을 그 후방(山東省 남부 철도 연변)에 각각 配備케 하며; ③ 第3陣의 병력은 제19집단군(3개 군단)의 9개 사단으로 西北軍區로부터 이동시켜 隴海鐵道 연변(후에 津浦鐵道의 산둥성 중부지역으로 변경)에 집결, 대비토록 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다른 장에 서도 간간히 林彪가 모택동의 북한 출병 방침에 대하여 이견 내지는 반대하고 있었던 것을 논하고 있으나, 이 장에서도 임포의 異見을 소개하고 있다. 柴成文의 말을 인용하여 저자는 임포는 출병연기를 주장한 高崗과 제13집단군 간부들보다 좀 더 나아가 “두 달 가까이 전쟁 준비를 추진해 온 과정에서 중국의 준비부족과 미군과의 실력 차

이, 참전에 따르는 위험성을 통감하여, 毛의 북한 출병방침 자체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두 사람 간에는 對유엔군 전략방침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전술한 바, 毛는 미국의 궁극적 의도는 중국을 향한 三路向心迂回 전략으로 파악, 중국군으로 하여금 북한 戰場에서 미리 미군에 반격을 가하는 것에 중점을 둔 반면, 林은 戰火가 중국으로 미치게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 전쟁을 한반도로 한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즉, 비공식의 場에서의 일이긴 하나, 林은 毛에게 “김일성으로 하여금 북한 내에서 산에 들어가 게릴라戰을 전개하게 하여, 미국에게 중국 공격의 구실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강과 임포가 모두 모택동의 “신임이 높은” 부하들이고, 도당을 지어 반대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異議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毛는 크게 개의치 않았으며,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참전준비를 속행시켰다는 말하고 있다. 아마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부각시켜 이 章의 제목을 “高崗과 林彪의 異議 提起”로 한 것 같은데, 장 내의 더 많은 다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좀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 6장-1) 미군의 인천상륙 후 상황정보의 交換不實에 관한 북한, 소련에 대한 불만

8월 하순부터 9월 초에 이르기까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예상하고 부심하고 있던 중국수뇌부는 9월 16일 뉴스를 통해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18일과 9월 27, 31일에 각각 김일성은 중국대사 倪志亮을 통하여 周恩來에게 인천상륙 후 북한군이 당면한 어려운 戰況들, 즉 “북한군은 인천방면에 2개 연대 밖에 없고 後援部隊도 바랄 수 없는 데다, 미군은 이미 서울에 迫頭하여 전쟁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과 “38선 이북에는 현재 수비를 담당할 부대가 남아있지 않으며, 남에 있는 주력부대는 미군에게 완전히 퇴로를 절단당한 상태라는 소식을 전하여 왔다.

이러한 소식들에 주은래와 우선 그 간에 북한, 소련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周는 9월 18일 駐中 소련대사를 로쉬친(Roshchin)을 불러 “중국지도부는 미 해병대의 인천상륙에 대해 신문발표와 평양의 라디오 방송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했었다”고 불평했다. 다른 한편, 모택동은 10월 1일 周恩來의 名義의 전보로 김일성에게 구체적인 방어전전략을 제시했다: “남방에 갇혀 있는 북한군 주력군부대 第一方面軍의 8개 사단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중화기를 버리고 작은 팀으로 짜서 적군의 간격을 뚫고 북방으로 귀환하고, 다른 그룹은 분산해서 적 후방에서 게릴라戰으로 복진하는 적군을 견제케 하라.” 이러한 중·북한 간의 직접 대화는 중국지도부가 그때까지 북한과의 모든 연락을 소련을 경유하여 하던 것을 김일성에게 직접 연락, 적극적으로 중국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한국전쟁에 깊게 간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6장-2) 참전준비의 가속화

유엔군의 인천상륙 직후 김일성은 내무상 박일우를 안동에 파견하여 제13집단군 수뇌들에게 “조선의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에 참전을 요청한다”는 말을 전했다. 제13집단군 수뇌부는 그러한 북한의 참전 요청을 중앙에 보고하는 동시에 유엔군은 계속 북상하여 압록강까지 진격해 올 것으로 판단, 중국의 참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참전준비를 더욱 서둘렀다. 중국 중앙에서도 9월 17일 변방군 사령관 高崗을 평양에 비밀리에 방문하고 오도록 하고, 9월 20일 주은래의 책임 하에 새로운 작전방침을 마련하였다. 참모본부와의 협력으로 마련된 새 작전방침은 이전의 ‘短期決戰’ 방침을 ‘지구전’으로 바꾸고, 각각의 戰場과 전투에서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집중하여 소규모의 적군으로 분할, 포위, 섬멸하면서 서서히 적군을 약화시켜 장기전의 바탕을 마련하며, 중국 국경을 향한 유엔군의 북상 공세를 저지함을 주요 목표로 정했다. 또한 周는 참전준비와 현황 파악 및 예상 전투지역의 實

地調査를 위해 大軍의 출동 전에 정보부원으로 된 수명의 선발대를 북한에 파견하자는 東北邊方軍 수뇌부의 건의를 받아 들여 5명을 선발, 武官 명의로 평양에 파견하였다. 외교적으로도, 周는 미국의 항공기와 군함의 중국 영공, 영해의 침입에 대한 강력한 항의서한을 3회에 걸쳐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냈고, 9월 말에는 만약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북상하면 중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와 신호를 수일간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 그러나 저자는 당시 중국은 만약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지 않고 남북 양립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내심 기대하여, 출병이외의 가능성을 찾고 있었고, 중국정부의 강경 발언은 중국 국민들에게 對美 戰爭에 대한 心的 준비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이 충돌하게 된 것은 당시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 행사에 대한 결의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었거나, 중국의 문화 전통의 미묘한 표현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이 미국에게 있는 듯한 시사를 하고 있다.

제7장과 8장은 7장에서 유엔의 계속된 북상에 따른 중국수뇌부의 지원군 파병 정책의 결정과정(10월 1~5일)을, 8장에서는 출병결정 후 지원군 출동의 실행과정(10월 6~12일)에서의 여러 번의 번복 등 우여곡절과 모택동의 승리를 祥論하고 있다.

## 7장-1과 2) 지원병 출병결정 과정에서의 논란과 모택동의 승리

38도선 이북으로 북진하는 유엔군을 자력으로 저지할 능력을 상실한 김일성이 9월 29일과 10월 1일 소련과 중국에게 각각 전보로 직접적 군사지원을 요청하였다. 소련의 직접 군사지원을 요청하는 김일성의 전보를 받은 스탈린은 같은 날 김과 모택동에게 각각 전보를 보냈으나, 그 내용은 아주 다른 것이었다. 즉 김에게 보낸 답신은 소련으로부터의 직접적 군사지원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한 채, “人民義勇隊를 조직할 것”을 권하고 “먼저 중국의 동지들과 협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쉬친 대사를 통해

毛에게 전한 스탈린의 전보의 요지는 두 가지였다: ① 자신은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휴가 중이라 조선의 정세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나, 모스크바로부터의 보고로 북한의 절망적 상황을 알게 되었고, ② 중국이 북한을 위해 5~6개 사단이라도 속히 38도선으로 보내 줄 수 있다면 북한은 38도선 이북에서 후속 병력을 재편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중국의 부대는 志願者의 신분으로 출동하고, 중국 지휘관들에 의해 통솔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건에 관해서 나는 조선 동지들에게는 조금도 말하지 않을 것이며 금후에도 전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었다. 스탈린이 양쪽에 위와 같은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은 그는 전부터 중국과 북한에게 별도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자기를 극동문제의 “중심인물(key person)”로 행세해 왔었는데, 이번 경우에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즉 스탈린은 늘 중국과 북한 간의 자주적 상호 연락을 취하는 것을 꺼려하여, 兩者를 분리시킴으로써 자신의 결정적 영향력을 保持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수법으로 소련군은 출병시키지 않으면서, 중국군의 출동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교묘한 언사로 권유하고, 중국의 출병이 성사될 경우 그것이 自己의 功임을 김일성에게 과시하려 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다른 한편, 10월 1일 스탈린의 전보뿐만 아니라 같은 날 밤 김일성으로부터 중국군의 출병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전보를 받은 모택동은 10월 1일 밤부터 5일까지 출병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4차례의 정, 군 수뇌부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모두 많은 반대로 상당한 난항을 겪은 후에야 출병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다음은 그러한 과정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제1차 회의는 이른바 書記局會議(10월 1일 밤)로 모택동과 4인의 書記, 즉 朱德, 劉少奇, 周恩來, 王弼時가 中南海의 頤年堂會議室에 모여 김일성의 구원병 요청에 대한 중국군의 참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회의에서의 최종 결론은 毛의 주도로 “10월 초 참전”쪽으로 방향을 잡고 상세한 것은 2일 오후 書記局 擴大會議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앞서 서기국회의에서 결정된 모의 早期出兵案이 2차 書記局 擴大會議

(10월 2일)와 3차 政治局擴大會議(10월 4일)에서 참석자 대다수의 반대로 결의가 무산되고, 제4차 政治局擴大會議(10월 5일)에 가서야 어렵게 결정을 보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제2차 서기국 확대회의는 1차 회의 때의 毛, 朱, 劉, 周와 정치국위원, 高崗, 聶榮臻와 各 地方區의 주요 책임자들이 참석하였고, 毛가 會議 議題를 即時出兵을 前提”로 하여 그 日時와 參戰軍 總指揮官 임명의 두 가지로 제한하여 시작하였으나, 토의과정에서 출병반대와 慎重派가 태반이어서 出兵推進의 毛가 고립되는 형국이 되어, 결국 早期參戰案을 유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회의의 결과와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저자가 주은래를 출병 반대파로 明示한 것이다. 참전반대자로 잘 알려진 林彪가 이 회의 중 출병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개진하고, 毛의 참전군 총사령관 취임 요청을 中日戰爭 때 당한 자신의 重傷으로 인한 病弱함을 들어 苦辭한 것도 회의에서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다음 날 제3차 정치국 확대 회의서도 역시 같은 현상이 일어나 즉시출병안의 가결은 또 다시 무산되었다. 후일 洪學智 등의 회고를 인용하여 저자는 당시 회의에서 即時出兵案에 찬성한 것은 毛 1人뿐이었고, 周와 彭은 애매한 태도, 그 외 全員(7 혹은 12명)이 반대였다고 한다. 그러나 毛는 포기하지 않고, 제4차 政治局擴大會議에서 前과 다른 事前 打診과 설득방법을 사용하여 그의 즉시출병안의 가결을 관철시켰다고 한다. 毛는 事前에 鄧小平과 高崗을 확실한 자기편으로 만들고, 그들을 이용하여 彭을 설득, 지원군 총사령관 취임을 약속받았다. 그런 이후 毛는 회의에서 彭으로 하여금 즉시출병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케 하고, 그를 지원군 총사령관에 추천하면서, 출동에 관한 구체적 계획은 회의 후 彭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선언, 반대파의 의견을 누르고 회의를 즉시파병으로 매듭지었다.

제8장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1) 10월 5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의 早期參戰이 결정 후 毛澤東이 취한 출병에 필요한 군령과 외교적 조치와 2) 毛가 中國人民志願軍의 「출병명령」, 下達한 날(10월 9일)과

같은 명령의 “一時中止”를 命한 날(10월 12일) 사이의 혼선과 志願軍 내 不滿 및 중국의 소련,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가 그것이다.

### 8장-1) 政治國擴大會議에서의 早期參戰 결정 후 취한 軍령 및 외교적 조치

10월 5일의 정치국확대회의에서 참전결정이 채택된 후 모택동은 주은래, 고강, 팡덕회와 중국군의 조기참전을 위한 실천사항을 의논하고,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지원군의 “設立命令”의 발표는 10월 8일로 정하고, 周, 彭, 高 3인이 담당할 임무를 부여하였다. 彭과 高는 8일 瀋陽으로 가서 동북변방군의 고급간부회의를 소집, 중앙정치국의 결정을 전하고 각 부대가 즉시 북한출병의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며, 高는 지원군의 참전 초기의 물자보급의 전 책임을 맡으며, 중국군의 출동 예정일을 10월 15일로 한다는 것, 그리고 周는 소련을 방문, 소련 공군의 지원과 무기와 장비의 대량구입 문제를 스탈린과 교섭하라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毛는 7일 소련 대사를 통하여 참전결정을 소련에 전하였다. 그 내용은 스탈린이 전에 요구했던 6개 사단이 아닌 9개 사단을 보낼 계획이며, 그러나 출동하는 것은 좀 기간을 요한다는 것이었다. 毛는 8일 북한 대사를 통하여 김일성에게도 출병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출병기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날 예정된 대로 「중국인민지원군의 설립에 관한 명령」을 發布하고, 9일 지원군의 한반도 출동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이 「9일의 命令」의 내용은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다. 그 이유는 그 명령 안에 지원군의 出動 期日과 규모가 明記되어 있어, 그것이 북한에 누설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저자는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출동중지 명령의 대상은 20만여 병력의 주력부대가 아닌 규모가 연대급 정도인 先遣隊였었다고 한다. 게다가 지원군의 출동에 관련된 문제들이 그 때까지 소련과 완전히 협의되지 않았고, 만약 북한이 지원

군의 출동 일을 미리 알게 되면, 북한군이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 8장-2) 「출병명령」日과 “一時中止”日 間 軍내 불만과 중국의 對蘇, 북한 관계

모택동이 9일 출병명령을 내린 같은 날 고강과 팡덕회는 심양으로 가서 변방사령부의 군단 이상 간부들을 소집하여 “參戰動員報告會議”를 열었다. 회의 벽두에 高와 彭은 毛主席의 조선원조 출병결정의 정당성과 지원군 부대원들의 필승의 신념과 확신을 강조하고, 참전문제에 대한 간부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토론 중 팡은 한 간부로부터 “東北區의 主席(고강)은 출병에 찬성하지 않는데, 西北軍政委員會 주석(팡의 이전 직함-필자)이 출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新任司令官인 자신을 외부인사로 보는 차별적인 질문을 하여 팡은 크게 노했다. 또 다른 군단 간부는 참전 시 공군지원의 有無를 질문하여, 사령관직을 받을 때 毛주석으로부터 공군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말로 답변을 했다. 다음 날 10일 彭이 安東에 가서 제13집단군 수뇌들과 출동계획에 대한 “합동연구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공군지원 문제가 제기되었고, 출병규모도 원 계획(2개 보병군단과 2개 포병사단)의 先發 출동부대 보다 많은 4개 보병군단과 3개 포병사단 全部의 동시 출동이 미군 대처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건의가 있었다. 즉 이들 회의들을 통해서 참전출동을 앞둔 지원군 간부들에게 前의 참전을 반대하던 감정이 살아 있는 것과, 자신도 重視하여 毛에게 물었던 공군지원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팡은 지원군 간부들 간 그러한 심리상태와 요구를 모에게 알리기로 결심, 至急電報로 毛에게 보고하였고, 毛는 지원군 지휘관들의 출동병력 증원 요구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11일 1시경 소련에 간 주은래가 스탈린과 연명으로 “중국지원군의

작전을 위한 소련 공군의 출동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至急電報를 毛에게 보내 왔다. 그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팡은 12일 밤 북경에서 열린 정치국회의에서, “지원군사령관 직을 그만 두겠다”고 할 정도로 대노했다고 하며, 毛도 너무나 기대외의 소식이라 9일 출병명령의 “일시중지” 명령이 내렸다. 그러나 저자는 毛의 “일시중지” 명령을 彭을 달래는 동시에 지원군 간부들의 불만을 진정시키며, 소련에 압력을 가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어이 소련 공군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毛의 다목적 포석이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9장은 10월 上旬 주은래가 은밀히 소련을 방문해 가졌던 1) “주은래·스탈린 비밀회담”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저자의 검증, 제10장은 1) 모택동의 志願軍 출병의 再결정과, 2) 지원군 주력부대들의 압록강 渡河 과정이 주된 내용이다.

### 9장-1) “주은래·스탈린 비밀회담”의 내용과 결과

주은래·스탈린 비밀회담의 내용에 관한 문제는 사소하게는 회의장소인 스탈린의 별장지의 위치와 訪蘇 經緯에서부터 회담의 핵심인 周의 발언 내용, 스탈린의 소련 공군지원 약속 여부, 회담의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 문제에 이르기까지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한 까닭은 이 회담이 비밀 회담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 소 양국의 공표도 없었고, 회담에 관한 1차 자료가 없는 것과, 회담에 중, 소 양측의 통역으로 참여하여 90년대까지 산증인으로 남아있던 소련 측의 페르드렌코, 중국 측의 師哲(스저: 黨中央政治秘書室 主任)과 康一民(강이민: 黨中央辦公廳 機要秘書)들의 증언이 각기 다른 까닭이다. 이 장에서 저자는 주로 강일민의 증언, 柴成文(駐北韓 臨時大使), 洪學智(제13군집단군 부사령관) 등의 고증에 보다 큰 신빙성을 두고 관련문제 연구자들의 견해를 함께 참조하여 위에서 든 회담의 핵심문제들을 검증하고 있다.

주은래·스탈린 회담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다. 중국 지원병에 대한 소

련공군의 지원출동과 소련제 무기와 장비의 공여 및 그 방법이 그것이다. 이 두 문제에 대해 스탈린의 대답은 중국 측이 기대하는 소련공군의 중국군 원호를 위한 출동은 없으며, 중국 측에 10개 사단 분의 무기, 장비의 공여를 약속하였다. 또한 지원군 출동과 전투시의 소련공군의 지원이 없는 대신 소련공군을 북조선에 인접한 안동일대에 전진 配備하고, 중국의 沿海地域에 있는 대도시에도 配備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주은래는 소련공군의 중국군 지원 문제에 대한 스탈린의 의지가 워낙 완강한데다 원조를 청탁하는 입장이라 회담 결과는 스탈린의 의사대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작은 문제로 이 회담 결과를 김일성에게 연락하는 방법은 전례대로 소련측에 맡기기로 하였다. 다른 한편, 주은래는 위와 같은 회담 결과를 즉각 지급전보로 모택동에게 전달하고, “출동중지의 再考”의 제안과 함께 공여방식 문제에 대한 지시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周의 전보를 받은 毛는 13일 정치국확대회의를 열어 “공군지원 없어도 참전한다”는 출병의 재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각각 周와 스탈린에게 중국의 “출병 재결정”과 무기, 장비 공여결재 방식은 차관으로 했으면 한다는 소식을 타전하였다. 스탈린은 毛의 전에 예정했던 대로 출병한다는 전보를 받고 무기와 장비의 원조에 관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중국 측의 요청에 응하려하고 차관방식으로 공여할 것에 동의, 3주 안(11월 초까지)에 중국 동북부예의 운송을 약속했다.

위와 같은 중, 소 간 회담의 최종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미에 대한 저자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참전을 결정했고, 毛의 그러한 결단에 의해 스탈린은 毛를 다시 보았다. 소련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의 존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중·소 간 밀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 10장-1) 지원군 출병의 재결정

주은래로부터의 “소련공군의 공군지원은 없다”는 내용의 전보를 받은 모

택동은 10월 12일 밤~13일 중앙정치국확대회의를 열었으며, 심양으로부터 팡덕회와 고강도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毛의 주은래의 전보 내용을 인용한 “소련 공군의 지원은 없다”는 말이 있자, 彭은 “소련의 배반”이라고 크게 노하면서 지원군 사령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한 彭의 분노에 毛는 소련공군의 출동이 없음으로 생기는 곤란을 인정하고, 그러나 스탈린이 소련공군을 파견, 중국본토의 방위지를 확약했고, 대규모의 무기, 장비의 갱신을 약속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彭에게 총사령관 직에 있을 것을 권유하고, 또한 “예를 들어 우리가 승리 못해도 스탈린은 우리에게 큰 빛을 지게 된다. 우리는 다음에 싸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싸움을 재개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러한 毛의 차분한 달램에 彭은 승복했으며, 毛는 지원군의 출동을 再決定하였다고 한다.

회의 다음날인 13일 모택동은 주은래와 스탈린에게 각각 전보를 보내, 소련의 중국에 대한 무기 공여 결재방식에 차관형식을 따르겠다고 하고, 周에게는 소련에 남아 무기 공여 문제에 대한 교섭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모두 최종적으로 중국군의 출병일을 10월 19일로 확정했다는 것을 알렸다. 이들 전보는 중국군의 참전 병력 규모는 제1陣 즉 시투입 부대 25만 여명, 제2陣 부대 15만명, 제3陣 부대 20만명 총 60만 여명이며, 지원군의 작전 방침도 이전의 防禦中心의 방침을 적의 후방으로 돌아 들어가는 ‘運動戰(流動的 進擊作戰)’ 전술로 바꾸었다고 전하였다.

## 10장-2) 지원군 주력부대들의 압록강 도하 과정

지원군의 출동일이 10월 19일로 결정됨에 따라 팡덕회 휘하의 지원군은 간부회의를 열어 부대들의 출동준비를 점검하고 작전 계획에 대한 보다 세밀한 방안의 토의 등으로 분주하였다. 그러한 중에 17일 아침 모택동으로부터 참전군의 압록강 도하를 보류하라는 명령이 전문으로 하달되었다. 주은래가 귀국하기를 기다려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2

次 停止’라고 하는 바, 이 명령은 18일 팡덕회와 고강이 참석한 북경에서의 서기국 확대회의에서 出動日을 다시 이전의 19일로 번복하였다. 저자는 당시의 그와 같은 毛의 “왔다갔다”한 정책 변경을 중국군의 북한 출병을 앞에 두고 그의 심정이 얼마나 초조했는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17일경 먼저 북한을 진입한 정찰군(연대 규모)에 이어 지원군의 주력부대들을 10월 19일 압록강 변으로 이동하여 도하를 실행하였다. 팡덕회는 19일 저녁 무렵 참모 1명과 경비원 2명을 대동하고 압록강 철교를 건너 북한 땅으로 들어갔으며, 지원군 주력부대들은 같은 날 5시 30분 제42군, 39군, 40군, 38군의 병력이 安東과 長甸河에서 1陣으로 도하하였고, 2진 제50군과 66군은 25일과 26일 안동과 輯安에서 북한으로 도하하였다. 그리하여 11월 1일까지 실제로 북한에 출동한 병력은 6개 보병군단의 18개 사단, 3개 포병 사단, 1개 고사포 연대, 2개 공병 연대 등 총 28만여 명에 달했다.

마지막의 장인 제11장은 1~10장까지의 내용들을 다시 요약한 것이 대부분으로 새로운 것이 많지 않다. 따라서 11장에 대한 논의는 이 서평에서 지양하려 한다.

끝으로, 이 책에 대한 나의 讀後 所感을 피력함으로써 이 서평을 마무리하려 한다.

이 책은 1949년 12월~’50년 2월 모스크바에서의 毛·스탈린 회담 때부터 1950년 10월 19일 “중국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한국전쟁에 직접 투입될 때까지 10개월여의 기간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기간 중 북한의 남한침략 계획을 둘러싸고 중국이 소련과 북한과 가진 외교 및 군사협조 관계를 추적하여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된 전 과정을 매우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색이며 장점이다. 다음의 세 가지가 그 중심적 논점이다: 첫째, 중국의 한국전쟁에 군사적 개입의 주도자는 모택동이었다.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의 결정과정에서 당 중앙위원회에서 적지 않은 고위인사들의 반대가 있었고, 스탈린의 懲憑과 모택동, 스탈

린 간에 전보를 통한 많은 意思疏通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결정, 실행케 한 것은 毛의 강력한 意志였다는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 중국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毛는 출병명령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연기하는 등 상당한 망설임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책(2004년도 개정판)은 그 初版(1991년)이 출판된 후 10여 년 동안 저자가 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한 한국전쟁에 관한 많은 一次資料들을 근거로 하고, 최근의 美, 中, 日, 韓國 등 한국전쟁에 관한 최근 연구 성과들을 함께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라 말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저자의 적지 않은 정성과 수고로 이루어진 귀중한 勞作이라 하겠다.

그러나 위에서 든 이 책의 특색과 장점, 그리고 저자의 오랜 수고가 기본 자료들의 이용에 있어서 편중과 제한이 이 책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본 평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구체적으로, 서두에서 지적한 바, 이 책 저자의 “정치적, 학문적 중립”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주요 핵심 문제들에 대한 이 책의 자료이용이 중국 측 자료와 연구서에 치우쳐 있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유력한 자료와 연구서들은 거의 도외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한 견해도 중국과 북한의 견해에 심하게 경사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최근 학계의 정설과도 乖離를 보이고 있다.

평자의 위와 같은 문제 제기와 관련된 이 책의 몇 가지 핵심적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1) '6·25'(1950년 6월 25일)는 한국전쟁의 開戰日이 아니며, 38度線 上에 서의 남, 북한 간 무력 충돌들이 격화되고 있었던 1949년이 진정한 한국전쟁의 개시 점이라는 주장
- 2) 한국전쟁은 미국이 한반도를 통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함정으로, 북한이 그 함정에 빠져 일어난 것이었다는 주장
- 3) 한국전쟁의 主導者는 북한의 김일성이며, 스탈린과 모택동은 김의 농간

에 말려서 마지못해 참여했다는 주장

- 4) 모택동은 1950년 5월 북경에서의 모택동·김일성 회담 때까지 북한의 남한침략 계획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으며, 한국전쟁 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던 주장

그 밖에도, 김일성이 “舊 滿洲 吉林省에서 났다”는 잘못된 記述까지 하고 있고, 듯한 일본서적 중 親 北韓 학자로 알려진 和田春樹의 책만을 인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들은 사실이 아닌 주장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독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지면 관계상 이들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상세한 반론을 펼 여유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서 열거한 주장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短評과 함께 簡單한 근거자료들을 註에서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치려 한다. 단 저자의 김일성의 출생지에 대한 기술은 상식 이하의 것임으로 근거 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 1) 1949년이 한국전쟁의 始發点이라는 견해: 이 견해는 현 중국과 북한의 관변 측 주장과 같은 것이다. 1949년도 남, 북한 간 충돌의 횟수를 근거로 한 것으로, 그 숫자는 북한정권과 슈티코프의 스탈린을 설득키 위한 조작이었다는 것이 1990년대 이래 한국과 미국의 연구서들과 소련의 解密 자료에 확실하게 나와 있다.<sup>1)</sup>
- 2) 미국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한국전쟁을 유도했다는 설: 1950년 6월 30일 북한의 남침을 저지키 위하여 맥아더 장군이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유엔군 총사령관 직을 임명 받을 때 미 정부의 방침은 制限戰爭으로 유엔군의 작전 한도를 한반도 이내로 분명히 못 박았다. 따라서 모택동의

---

1) A. V. トルクノフ 著, 下斗米仲夫·金成浩 譯, 『朝鮮戰爭の謎と眞實-金日成, 스탈린, 毛澤東の機密電報による-(草思社, 2006), pp. 33-34; 58-70; 정병준 지음, 한국전쟁-38도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돌베개, 2006), pp. 298, 301-302; Kim, Kook-Hun,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Its Rise and Fall,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1989, pp. 110-116.

“三路向心迂廻” 전략도 허구 위에 세워진 잘못된 전략이었다 하겠다.<sup>2)</sup>

- 3) 김일성이 한국전쟁의 主導者였다는 것은 본 평가의 관련 논문이나 다른 많은 韓, 美, 舊 소련의 사료들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sup>3)</sup>
- 4) 마지막으로 모택동은 1950년 5월 김일성과의 회담 때까지 그의 남한 침략 계획에 대해 몰랐다는 주장: 이 주장의 근거로 저자가 든 재미 Chen Jian 교수의 저서 중 1949년 12월 중 모택동·스탈린 회담에서 북한의 남침계획이 의논이 안 되었다는 언급은 저자의 誤讀의 결과였다. 또한 모택동은 이미 1949년 5월 북경에서 북한의 金一과의 회의 시 북한의 남침계획을 들었고, 전략적 조언까지 하였다. 즉 당시 중공군 내 조선인부대를 북한에 송환해 준 것은 북한의 남침계획을 돕는 조치의 하나였다.<sup>4)</sup>

위의 예로 보아, 실례 같지만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의 기본적 자료나 유력한 연구서들을 보지 않았거나 전혀 참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서의 생명을 최선을 다해 여러 방면에서 관련 문제들을 천착하여 추구하는 대상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점이 이 책의 문제라는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원고투고일 : 2007. 3. 20, 심사완료일 : 2007. 6. 8)

주제어 : 中國人民志願軍, 朱建榮, 東北邊防軍, 抗美援朝戰爭史, 韓國戰爭

2) Max Hastings, The Korean War, A Touchstone Book, 1987, p. 64.  
 3) 이병주, 「최신 舊 소련 비밀자료에 의한 한국전쟁 발발 배경」(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戰史』 제4호, 2002. 6), pp. 167-203.  
 4) Chen Jian 교수의 책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p. 85~88; 앞의 A. V. 토클크노프의 책, pp. 104-105; 日書로 萩原遼, 『朝鮮戰爭: 金日成とマッカーサーの陰謀』(文藝春秋, 1993), pp. 147-152 참조.

<ABSTRACT>

### A Book Review : *Mao Zedong’s Korean War-till China crosses the Yalu River*, written by *Zhu Jian-rong*

Lee, Byung-joo

China entered the Korean War on October 19, 1950 by providing approximately 250,000 soldiers calle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CPV) to North Korea. The CPV became the leading force for the Communist side in the battlefields of the Korean Peninsula until the armistice agreement between the UN and the Communist Forces on July 27, 1953.

This fact provides reason for suspicion of China’s close connection to the cause of the Korean War. That is because China’s motive for involvement in the Korean War and the cause of the Korean War are important issu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China’s involvement in the Korean War was pre-planned with North Korea and Soviet Russia, or it was an act of self-defence as the UN Forces’ approach to the border of China and North Korea.

This book is a rare work which gives us a detailed account of the entire process of how China became involved directly with the Korean War. It tracks various major events of China’s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Soviet Russia, and establishes *Mao Zedong* as the central figure, which eventually led China into the Korean War from the late 1940’s until the time of the CPV’s crossing the *Yalu* in late October, 1950.

By doing so, it also reveals not only China’s motive for involvement in the Korean War, but also the cause of the Korean War. In a bit more



detail, the book describes 1) *Mao's* motive behind his decision to get China involved with the Korean War; 2) his 'Chinese brand socialism', 3) his international views before and after involvement in the Korean War; and 4) his particular style of leadership as well as political and military strategy.

In spite of such a detailed account of events, this book fails to deliver accurate conclusions. Major themes in this book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starting day of the Korean War is not on 25 June 1950, but rather some time of 1949 when skirmishes occurred frequently on the 38th parallel;
- 2) The Korean War was a trap set by the US in order to invade China through the Korean Peninsula. *Kim Il-sung* fell into the trap by invading the ROK;
- 3) *Kim Il-sung* was the prime mover of the Korean War, and *Mao* and *Stalin* were reluctant to support the war;
- 4) *Mao* was not aware of North Korea's scheme for Military invasion of the ROK until the meeting of *Mao-Kim* in May, 1950.

The author often asserts completely incorrect information, for example, claiming ... "*Kim Il-sung* was born in Manchuria ..." It has been well documented that *Kim* was born in North Korea and did not move to Manchuria until he was 7 years old.

In spite of the author's claim of using many raw materials and other researchers' recent works, which he has gathered directly in China and during his six month stay in the US, he primarily serves up the Chinese government's official views garnished with some North Korean Government allegations. Despite his research overseas, he failed to use credible the US sources and recently published books, not to mention the sound research on the Korean War by the ROK scholars. These shortcomings are described in detail in my Korean review (specific name of the article here and citation/reference).

This book does work in helping us to understand ways in which China's high-ranking personnel (i.e., *Mao* and other civil and military key persons related with the Korean War matters) handled government and military affairs, and their mentality during the period from 1949 to 1950. Nevertheless, it is this reviewer's sincere hope that this review can help prevent general readers from being misled on some of the basics of the Korean War by the author's numerous misstatements of fact.

Key Words: <i>Zhu Jian-rong</i> , Chinese People's Volunteers (CPV), The Korean War, <i>Mao Zedong</i> , China's Involvement
--